

# “방송 무대에서 제 노래 부르고 싶어요”

뮤지컬 배우 겸 가수 김준수(31)가 제대 후 첫 콘서트에서 동방신기를 탈퇴한 뒤 힘든 나날을 언급하며 울먹였다.

21개월간의 의무경찰 복무를 마치고 지난달 5일 제대한 그는 2일 오후 5시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콘서트 ‘웨이 백 시아’(WAY BACK XIA)를 열었다.

김준수는 3시간 30분을 꽉 채워 노래한 뒤 “2년 전 여러분과 이별했고, 그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져서 사실 다시 무대에서 못 볼 줄 알았다. 이번 콘서트의 감사함은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연장에 10대 팬들이 온 게 신기하다면서 “제가 방송 활동을 못한 게 7~8년 됐고 군대에 다녀왔으니 9년간 노출이 없었다. 방송하지 않는데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게 맞는 것인지, 앨범을 내도 방송에서 노래 한 번 부를 수 없는데 이걸 계속해야 하나 싶었다.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이렇게 오래 방송 못 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며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한 김준수는 2010년 박유천, 김재중과 JYJ를 결성해 앨범을 냈지만, SM 등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를 계기로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일을 방지하는 방송법(일명 ‘JYJ법’)이 2015년 11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EBS ‘스페이스 공감’, YTN 뉴스 등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지는 못했다.

김준수, 제대 후 첫 콘서트 ‘웨이 백 시아’ 2만 여 팬 환호... 탄탄한 노래·춤 실력 선보



다. 정말 응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은 제가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걸 모른다. 제 지인들도 그렇다. 하기 싫어서 안 한 줄 안다”며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적어도 노래를 냈을 때

두 번이라도 방송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다. 1등 바라지도 않는다. 그게 다인데도 참 어렵더라. 어떻게 보면 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다. 나는 저런 날이 올까 싶어서 그날 엄청 울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입대한 뒤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났다. 방송에 나오는 모든 분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며 “그래도 많이 배웠고 단단해졌다. 단단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시골을 부리는 팬들을 달랬다.

김준수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너무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작아지더라도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공연 오시면 즐기고, 노래로 소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계속해드리겠다”며 슬픈 눈으로 웃어 보였다.

콘서트 마지막 화차였던 이날 공연은 7,000 관객의 등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흘간 2만명이 모였으며 티켓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팬들은 2년간 잠은 합성을 쏟아내며 ‘기다렸어 준수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공연장에는 길이 45m 높이 8m 발광다이오드(LED) 타일이 설치돼 김준수의 모습을 사방에서 담아냈다.

2년 가까운 음악 공백은 온데간데없었다. 그는 ‘오에오’(OeO), ‘인톡시케이션’(Intoxication), ‘예빠’, ‘토끼와 거북이’ 등 20여곡을 탄탄한 가창력과 녹음지 않은 춤 실력으로 선보였다. 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코너 ‘지니타임’에선 그동안 선보인 인기 뮤지컬 넘버들을 메들리로 들려줬다.

/연합뉴스

## 안방까지 이어진 ‘보헤미안 랩소디’ 고공행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이 안방극장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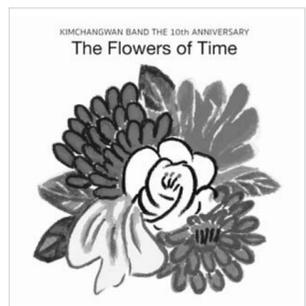
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야에 따르면 MBC TV에서 전일 오후 11시 55분부터 방송한 ‘지상 최대의 콘서트, 라이브 에디션’ 시청률은 5.4%를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은 퀸이 1985년에 티오피아 난민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연 콘서트를 100분으로 편집한 것이다.

또 배철수와 임진모 해설이 곁들여져 1985년 감동을 그대로 선 물, 호평을 받았다.

한편, ‘보헤미안 랩소디’는 전 날 관객 수 600만 고지를 돌파하며 역대 음악영화 흥행 1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김창완밴드 데뷔 10주년 베스트앨범 발매



‘더 플라워스 오브 타임’ LP버전

김창완밴드가 데뷔 10주년을 맞아 베스트앨범 ‘더 플라워스 오브 타임’(The Flowers of Time)을 LP(바이닐)로 발매한다고 3일 소속사 이파리 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3형제 그룹 산울림 리더인 김창완은 2008년 김창익 사망 이후 “막내가 없는 산울림은 무의미하다”며 산울림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는 대신, 산울림 음악이 지닌 진취성, 미래 지향성을 계승한

김창완밴드를 결성했다. 밴드는 2008년 첫 앨범 ‘더 해피스트’(The happiest)를 시작으로 ‘용서’까지 총 8장 앨범을 냈다.

밴드의 지난 10년을 집대성한 신보는 LP 두 장으로 구성됐다. 표지 그림은 김창완이 직접 그렸다.

록 발라드 위주 첫 장에는 ‘내가 갖고 싶은 건’, ‘E 메이저를 치면’, ‘시간’, ‘열두살은 열두살을 살고 열여섯은 열

여섯을 살지’ 등이 수록됐다. 펑크 록 위주 두 번째 장에는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모자와 스파게티’, ‘제발 제발’, ‘우두두다다’ 등이 실렸다.

김창완은 “LP1은 관조적 사랑, 흰색, 가사 중심, 저녁 또는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혼자 듣거나 여자친구에게 들려주고 어른께 권하라. 결혼 기념일 선물용으로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LP2는 정열적인 사랑, 빨간색, 음악 중심 앨범으로 아침 또는 대낮에 어울린다. 여럿이 듣거나 남자친구에게 들려주고 ‘얼라’들에게 권하라. 생일 선물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첨단 기술로 구현한 ‘호두까기 인형’

판타지 시각화 심혈... 6일 개봉

차이콥스키의 발레극 ‘호두까기 인형’은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 세계에서 무대에 오르는 작품이다.

최근 클래식 명작을 실사 영화로 옮기는 ‘디즈니 라이브 액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디즈니가 이 작품의 원작인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호두까기 인형과 4개의 왕국’을 선보인다.

19세기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원작은 현실과 환상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분위기의 동화다. 디즈니는 원작의 판타지를 시각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첨단 CG 기술을 동원해 스크린에 구현한 환상적인 비주얼은 잠시도 눈을 떼기 아까울 정도다.

‘클라라’(매켄지 포이 분)는 크리스마스이브에 아빠로부터 세상을 떠난 엄마가 남긴 선물인 핀 텀블러를 받는다. 하지만 텀블러를 열 수 있는 황금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대부 ‘드로셀마이어’는 클라라에게 어딘가에 묶인 황금 실을 선물한다. 황금 실을 따라간 클라라는 신비한 크리스마스 숲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황금 열쇠를 발견하지만 ‘생쥐 마왕’이 훔쳐가고 만다.

생쥐 마왕에게 쫓기던 클라라는 호두

까기 인형 필립 대위의 도움으로 무사히 4개 나라를 다스리는 마법 왕국의 궁전에 도착한다.

그러나 네 번째 왕국의 섭정인 ‘마더진저’가 전쟁을 준비 중이고, 이를 막으려면 황금열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클라라는 황금열쇠를 찾기

위해 필립 대위와 함께 네 번째 왕국으로 모험을 떠난다.

4개 왕국 중 ‘꽃의 왕국’, ‘눈송이의 왕국’, ‘사랑의 왕국’은 다채로운 색깔과 독특한 질감이 더해져 한 폭의 유화를 보는 듯한 공간으로 창조됐다.

각 왕국의 섭정이 한자리에 모이는 궁전은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 탄생한 러시아풍으로 디자인됐고, 주인공 ‘클라라’가 입는 의상은 18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영향을 받은 작품이다.

클라라가 즉위식 때 입는 드레스는 13명의 의상팀이 350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만든 작품으로 치마 밑단 둘레에 만 10m, 총 40m에 달하는 옷감이 사용됐다고 한다.

여기에 22m에 이르는 인조 다이아몬드 체인 장식, 2,500개의 크리스탈 장식과 1,428개의 LED 전구를 달아 단 한 벌의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생쥐 마왕’은 6만 마리의 생쥐로 이뤄진 2.7m 크기의 괴물이다. ‘생쥐 마왕’을 탄생시키기 위해 30명 이상의 CG 팀이 6개월간 매달렸다고 한다.

환상적인 영상과 비교하면 스토리 전개는 다소 아쉽다. 6일 개봉. 전체 관람가. /연합뉴스

## 유이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

악의적 비판·루머 유포 등 강경 대응

배우 유이(본명 김유진·30) 측은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유이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유이를 향한 악의적인 비판과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및 명예훼손 게시물과 악성 댓글 사례 등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소속사는 “그동안 유이를 향해 지속해서 행해진 악의적인 행태에 대해 꾸준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배우이기에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 대응을 자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도를 넘는 수위와



반복적인 게시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고,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유이는 현재 KBS 2TV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에 출연 중이다. /연합뉴스

## 인피니트 연말 국내 팬미팅 개최

오는 30~31일, 고려대 화정체육관

그들 인피니트가 오는 30~31일 고려대 서울 안암캠퍼스 화정체육관에서 팬미팅을 연다. 3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인피니트 팬미팅 포에버(forever)’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 자리는 국내 팬들과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에는 대만, 일본, 마카오 팬미팅을 성료했다. 인피니트는 31일 오후 10시부터 공

연을 시작해 팬들과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할 예정이다.

울림은 “인피니트를 한결같이 응원해준 팬들과 한 해를 마무리할 자리를 만들었다”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티켓은 멜론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연합뉴스